

《역사용어 바로쓰기》 공저자 서울대 박태균 교수

“바른 역사용어가 바른 역사 만들어”

35명 저자 공동 저술...역사적 사실 재인식 용어 둘러싼 담론의 맥락 되짚기도

역사서들이 잇달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고 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붓물 터지듯 출판계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사의 전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서들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용어 바로쓰기》가 이달에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들 역사서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용어들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용어 바로쓰기》를 함께 집필한 35명의 필자를 대신해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에게 책이 갖는

함의를 들어 보았다. 《역사용어 바로쓰기》가 어찌 보면, 박태균 교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인터뷰 상대로는 적격인 셈이다.

‘삼국시대는 단 98년뿐’...역사에 대한 오해 수정

지난해 《한국전쟁》을 출간한 박태균 교수는 그 책을 《역사비평》 편집위원들에게 한 권씩 선물했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한정숙 교수가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은 국제학계 용어로는 적합할 수 있어도 한반도 구성원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재고할 만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작은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역사비평》 편집위원들은 논의를 점차 발전했고, 해방 60주년을 맞는 시점에 《역사비평》이 꼭 해야 할 일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역사 용어들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태균 교수는 “책에는 40개의 용어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비평》 편집위원들이 쏟아놓은 주제는 100개를 훌쩍 넘는다”면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도 있고, 꼭 필요한 주제지만 적절한 필자가 없어 포기한 주제도 있다”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홍익대 역사교육과 김태식 교수가 쓴 <삼국시대에서 사국시대

로>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만 배워왔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에 충분하다. 흔히 ‘삼국시대’라 불리는 기원전 1세기부터 668년에 이르는 시간 속에서 600년 이상 고구려와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함께 존재했다. 가야를 빼고 삼국만 존재한 시기는 불과 ‘98년’ 뿐이다.

‘금세기 사회과학 도입기, 일본 근대어 무분별 사용’

김태식 교수의 글은 그동안 통용되어온 기존의 용어를 비판하고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거나 대안 검토를 제안한 경우다. 신사유람단을 ‘1881년 일본시찰단’으로 해야 한다는 서원대 이이화 석좌교수의 글과, 을사조약이 아니라



한일외교권위탁조약안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서울대 국사학과 이상찬 교수의 글 등 9편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역사용어 바로쓰기》는 위안부와 정신대 등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해방인가 광복인가’ 등 혼용되고 있는 상이한 용어들이 가진 담론의 맥락을 분석한 거시적인 내용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박태균 교수는 역사 용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내부에도 존재하지만 외부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회과학이 처음 국내에 소개될 때 일본 근대어들이 그대로 들어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면서 “영어 등 본래 뜻과 적합한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적·학술적 내용임에도 어렵잡게 읽혀

책을 읽는데 어려움도 많았다. 일단 많은 저자들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글쓰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또 어떤 필자는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짚어주었고, 어떤 필자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책 전체의 아우라를 찾아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박태균 교수는 “책이 나오고 막상 읽어보니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길 더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칫 통일성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었다면 ‘역사용어 사전’이 될 뻔했다”고 말했다.

박태균 교수가 말하는 《역사용어 바로쓰기》의 가장 큰 미덕은 다소 전문적인 혹은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독자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역사를 대중 독자들이 읽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작업입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더 많은 학자들이 학술적 글쓰기와 대중적 글쓰기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교수는 “전문 학술서적 역시 독

자들이 읽을 수 있는 깊이를 모든 인문학자들이 갖추면 좋겠다”면서 “〈역사비평〉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부분도 사실 이 대목”이라고 털어놓았다.

역사 용어 정비,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인식’

사실 《역사용어 바로쓰기》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과 내일을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역사인식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결국 용어를 만든 사람이 어떤 현실에 발을 딛고 서있느냐에 따라 역사용어는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 ‘들어가는 글’을 쓴 서울대 서양사학과 한정숙 교수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 그 인식 방향을 지배한다”고 표현했다.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박태균 교수를 비롯한 〈역사비평〉 편집위원들은 《역사용어 바로쓰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평화와 인권”이라고 전제하면서 “19세기와 20세기 한국의 근대화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와 인권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현 시대를 통해 바라본 학자들의 관점이고, 결국 새로운 세기에는 새로운 현실에 기반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편집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태균 교수는 “이 책을 냈다고 해서 역사 용어 정립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역사비평〉도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시대의 의미와,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취재_정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